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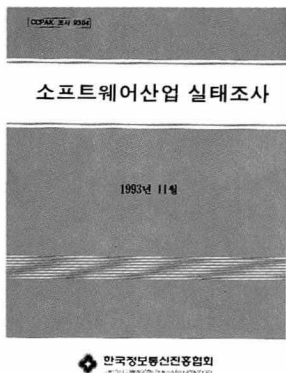
협회동정

조사연구부

‘S/W 산업실태조사’발간

우리협회는 지난해 12월 4일 국내 S/W 산업에 대한 실태보고서(4×6배판 160쪽)를 발간했다.

700여개 S/W 생산 및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455개 업체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현황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업계분석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정보통신 분야 진출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매출, 자본금, 종업원수 등에서 각각 연평균 58.4%, 72.2%, 32.7%의 높은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업체의 주전산기 보유율은 46.9%(223개 업체)로 평균 주전산기 보유대수는 5.37대, 보유기종은 IBM > TANDEM > SUN > HP > HITACHI 순이고, 보유형태는 53%가 ‘리스’, 34%가 ‘구매’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투자액과 매출액이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는 ‘경영관리 프로그램’으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32쪽 참조, 문의 : 조사연구부 최규원)

정보통신진흥부

‘정보화 우수사례집’발간

정보화 우수사례집(4×6배판 260쪽)이 지난해 12월 30일 발간됐다.

우리협회와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전산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이 사례집에는 국가행정부문, 산업부문, 지역사회부문 등에서 각 10건씩, 해외사례 5건 등 총 35건의 정보화 사례들이 보고서 양식을 탈피 현장감 있게 서술됐다.

이 사례집은 지난해 7월 발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7차에 걸친 실무회의(정보화추진 우수사례집 편찬위원회)를 통해 발간됐다.

지난해 12월 16일 백석기(한국정보문화센터 기획실장), 여찬기(한국전산원 기획부장), 강성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부장), 허련(한국정보문화센터 홍보과장), 민원기(체신부 정보통신국 사무관) 등 5명이 참가한 가운데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정보화추진 우수사례집 편찬위원회에서는 사례집 목차순서, 발간일정 조정, 용어 통일(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목차순서는 국가행정부문(정부 조직편제순), 산업부문(이하 가나다순), 지역사회부문, 해외사례순으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용어통일 기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간한 정보

통신용어해설집을 참조하기로 결정했다.(문의 : 정보통신진흥부 조영훈)

사업관리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업무편람’ 발간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업무편람(4×6배판 746쪽)이 지난해 12월 22일 발간됐다.

업계의 형식승인 관련법규와 절차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협회에서 발간한 이 편람집은 형식승인지침, 관련 법령 및 실무처리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형식승인제도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관련 업계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통신기자재는 안전성과 품질보장이 중요해 생산현장, 실무부서 및 경영진에서 실무지침서 혹은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협회에서는 이 편람집을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 데이콤빌딩 대강당에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문의 : 조사연구부 박남금)

기획예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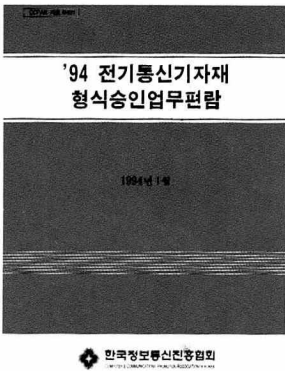
제30회 이사회 개최

제30차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정장호 회장의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공회의

소 상의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회원가입 승인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데이타시스템, 서울통신기술, 한국출판정보통신, 픽셀시스템 등 4개사의 가입이 추진됐다.

또한 사업계획요약(초안), 예산계획요약(초안), 93 협회 예산운영 현황보고, 통신시장 개방대책 수립활동 등이 보고됐다. 보고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식, 사업추진체계, 목표개념 등을 재설정하기로 하고, 추진할 모든 사업에 기획, 조사연구, 국제협력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UR 타결에 따른 제한경쟁이 아닌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업무편람



제30차 이사회에서는 94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이 논의됐다.

전방위 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업계 중심의 중장기 발전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금융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DB 추진에 따른 S/W BANK 구축, 업계를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 심포지움 추진(상반기, 하반기), 구축된 DB의 상용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예산부 김승경)

정보윤리위원회

지난해 전화정보윤리심의 5512건

지난해 우리협회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전화정보는 총 55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6월 177건 심의를 시작으로 7

월 456건, 8월 990건, 9월 248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월을 기점으로 10월 502건, 11월 564건, 12월 340건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9월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주개통, 인천개통과 맞물려 700번 서비스 제공지역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전화정보윤리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지역별 현황은 서울 1371건, 인천 1973건, 전주 1092건 등으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산 364건, 대구 325건, 대전 142건, 광주 240건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6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심의한 전화정보윤리건수는 음성 5404건, 비음성 5건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음성부문의 경우 심의결과 4371건이 적합 심의를 받았고 227건이 부적합 심의를, 806건이 보완 심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정보윤리실무위원회는 39회에 걸쳐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보윤리위원회는 심의기준 및 분류기준 공개, 약식심의기간 단축시행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화정보윤리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심의기준 및 분류기준 공개는 PC통신, 광고사서함을 통해 제공하기로 하고 해당내용을 정보윤리(재)심의신청 접수증에 첨부하기로 했다. 또한 약식심의기간 단축의 경우 과거 1주일 이내 통고에서 2일 이내 통보로 변경하기로 했다.(문의 : 정보윤리위원회 이석호)

● 정보통신사업 국제화 촉진 토론회

우리협회에서는 한미통신협상, UR타결등 통신사업의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적극 대응코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업계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94. 1. 25 14:00~16:30
-장소 : KOEX 3층 소회의실 II

협 회 일 지(12월)

● 정보통신기금과제 심의

- 일시 : 93. 12. 3 14:00

- 장소 : ETRI 서울사무소

- 참석자 : 현호중 상무이사

● 한국발명특허협회 주관 공청회 참석

- 일시 : 93. 12. 7

- 장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회의실

- 참석자 : 강성민 부장

- 주제 : ▲발명진흥법(가칭)의 입법 필요성과 방향

●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연구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 일시 : 93. 12. 13 14:00

- 장소 : 체신부 14층 회의실

- 참석자 : 현호중 상무이사

● 정보화추진 우수사례집 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93. 12. 16

- 장소 : 협회회의실

- 참석자 : 백석기(ICC 기획실장) 외 4명

- 내용 : 사례집 목차 정리, 발간일정 조정

● 정보통신진흥협의회 회의 참석

- 일시 : 93. 12. 17 14:00

- 장소 : 체신부 14층 회의실

- 참석자 : 정장호 회장

● 93년도 정보통신정책 세미나 참석

- 일시 : 93. 12. 22

- 장소 : 체신부 14층 회의실

- 참석자 : 현호중 상무이사, 강성민 부장

● 제30회 이사회 개최

- 일시 : 93. 12. 23 08:00

- 장소 : 상공회의소 상의클럽

- 참석자 : 정장호 회장외 16명

- 내용 : ▲보고안건(사업계획요약(초안), 예산계획요약(초안), 93협회 예산운영 현황보고, 통신시장 개방대책 수립활동) ▲부의안건(회원가입 승인건)

● 제21차 정보윤리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93. 12. 29 16:00

- 장소 : 협회회의실

- 참석자 : 박순백 위원장외 8명

- 내용 : ▲보고안건(정보윤리 약식심의(135건), PC통신서비스 ID 부여, 전화정보윤리 심의현황, 전화정보윤리심의 개선방안) ▲심의안건(전화정보윤리심의 및 의결)

● 94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보고

- 일시 : 93. 12. 30

- 장소 : 체신부 정보통신국

- 내용 : 94년도 중점사업으로 기획사업, 조사연구사업, 국제협력사업 선정(자세한 사항은 32쪽 참조)

● 공공 DB 과제선정협의회 회의 참석

- 일시 : 93. 12. 31 12:00

- 장소 : 체신부 회의실

- 참석자 : 현호중 상무이사